올바른 유아 성교육

김성아(청소년 성문화센터 관장)

Ⅰ. 유아성교육의 필요성

3세 이전을 영아기라 하고 3세에서 7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할 때 이 시기의 성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어, 수학을 잘 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듯이 성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잡히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 할 수 있다. 영유아 시기에는 신체의 발달과 더불어 지적, 성격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발달을 가져온다.

백지장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첫 경험과 첫 인식이 이루어 진다.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비롯해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후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새롭고 강력하다.

성도 마찬가지다. 소대변 가리기를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이후 부부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경험한 아이는 이후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만큼 영유아기의 안정적인 발달과정은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유아기 때 성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은 복잡한 성지식이 아니라 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성에 대해 은밀하게 대하는지 장난스럽게 대하는지 또는 더럽다고 느끼는지 밝고 건강하게 느끼는지가 이 유아기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알면 된다. 그러나 성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 형태든 이 시기에 남게 된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때, 성적인 놀이에 대응할 때, 자위행위를 할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나 교사의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먼저 부모와 교사로 부터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진지하고 자연스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겠다.

Ⅱ. 올바른 성개념

흔히 '성'이라 하면 'Sex'를 생각한다.
'Sex'라 하면 또 무엇이 연상되는가? 남녀의 알몸과 성행위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성기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성개념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올바른 성개념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생식기가 다른 남녀가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는 만들어내는 모든 내용이 바로 총체적인 개념의 성인 것이다.
Sexuality(性性)라는 총체적인 개념의 성의 요소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남녀가 관계할때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명, 사랑, 쾌락이 있다. 이 3요소는 인간이 오랜 세월 터득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온 것이다.
생명은 남녀가 생긴 이래 제일 먼저 만들어 온 것이다. 정자, 난자를 모르던 시절에도 남녀는 아이를 만들었다. 나중에 임신의 원리를 터득하여 의식적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조절하게도 되었다. 생명활동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와 인류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사랑은 남녀가 짝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서 부터 그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단순히 아이만 낳고 살기보다는 이왕이면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위해 서로의 공감대와 일치점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남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 풍부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한다. 쾌락은 남녀가 만드는 즐거움이다. 샘솟는 에너지가 나오며 창의성과 열정을 만든다.
현대에 와서는 성적인 즐거움이 행복의 큰 요건이 될 정도이다. 감각적인 면도 연구하고 개발하여 더욱 큰 즐거움을 맛보려 한다.
생명, 사랑, 쾌락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인데 문제는 이 3요소가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제멋대로 노는데 있었다.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성이 되는데 따로 노는 이유로 성은 상처와 죽음, 배신과 퇴폐를 가져왔다.
생명이 무시된 성은 낙태와 미혼모를 낳고 사랑이 빠진 성은 야타족을 만들고 왜곡된 쾌락은 변태를 낳는다. 생명, 사랑, 쾌락은 함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며 함께 조화를 이룰때라야 성은 밝아지고 건강해 진다.
유아기의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지만 부모와 교사는 은연중에라도 사랑과 쾌락에 대해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세가지 요소에 대해 조화로운 관점이 서야 부모와 교사 또한 아이들에게 진지하고도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Ⅲ. 유아기의 질문들

1. 생식기 명칭

“엄마, 이게 뭐야?” 2~3세 된 아이가 묻는 말이다.
자신의 생식기나 동생 및 다른 사람들의 생식기를 가르키며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성에 대한 첫 질문은 바로 생식기 명칭에 대한 것인데 어떤 명칭이 올바른 것일까?
흔히들 ‘고추’ ‘고치’ ‘잠지’ ‘찌찌’ 등으로 말하는 것 같다. 유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할머니는 먹는 고추와 혼동하도록 손자에게 자꾸 고추를 따달라고 한다. 남근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은 남자아이에게 생식기를 장난스럽거나 함부로 대하게 만들 수 있고 여자 아이에게는 남자의 생식기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문화와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무난한 것은 음경, 고환, 음순, 질, 자궁 등으로 부르는게 좋겠다.
아주 어린 경우 아들이 4세였을 때 음경이라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는 몇번의 반복후에 자연스럽게 그 명칭을 사용했다.
올바른 명칭 사용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을말할때의 자세와 태도이다. 장난스럽거나 더러워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진지하고도 자연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역시 만 4세된 내 아들이 음경을 만지고 있을 때 처음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너 이게 뭔지 아니? 음경이야. 따라해봐. 그래 음경. 또 여기는 고환이라는 곳이야. 고환. 여기서 아기씨를 만드는데 이 아기가 되는 씨는 음경을 통해 걸어다녀. 아기씨가 걸어다니는 길이 음경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지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이 길이 상해. 그러니까 손을 씻고 만지든지 조금만 만져야 해. 아주 귀중한 것이거든. 잘 보살펴야 해. 알았니?”
뭔가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벌레가 들어와 갉아먹는다느니 썩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으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성에 대해 너무 깔끔을 떨거나 반대로 아주 더럽게 생각할 수 도 있다.

2. 출생의 비밀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아기는 어디로 나와?” “아기는 어떻게 생겨?”
3세 이후부터 7세까지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출생에 대한 질문이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아이에게 머리를 쥐어박으며 조그만 게 별 걸 다 묻는다면서 이다음에 크면 알게 된다고 야단을 쳤지만 요즈음의 부모들은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쁘게 살다보면 어느새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이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척 당황하게 된다. 얼떨결에 ‘배꼽’, ‘똥꼬’ 하기가 일쑤다.
옆에 앉아 있던 아빠는 아주 장난스런 얼굴로 아이에게 말한다.
“야, 낳기는 어디로 낳아?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아이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함부로 묻는 것이 아닌가?’ 하든지 ‘아 이거 참 재미있네? 엄마가 놀래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빠의 장난스런 표정을 보고는 자신의 진지함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즉 부모를 통해 크게 남는 것은 ‘은밀한 성’이나 ‘장난스런 성’, ‘애매모호한 성’ 느낌이다. 어떤 대답이 좋을까?
내가 6세된 아들에게 했던 말이다.
“좋은 질문이야. 아기는 엄마의 ‘질’이라는 곳으로 나와. 질은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있는 길인데 여기는 겉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데야. 아빠가 음경으로 엄마에게 아기씨를 주는데 그 아기씨를 처음 받아내는 곳이 엄마의 질이라는 곳이야. 나중에 아기가 엄마 자궁이라는 곳에서 다 자라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나오는 길도 바로 질이야. 아기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 남자의 음경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질도 참 중요한 거야.”
백지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며 가르쳐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고 좋은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것이고 많이 이해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번 반복되는 속에 점차 터득될 것이고 아뭏든 뭔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느끼는 정도라면 올바른 교육은 된 것이다.

3. 놀이와 장난

5세된 남녀 아이가 한방에 들어가 노는데 조용하길래 방문을 열어보니 옷을 벗고 서로 몸을 보여주며 만지고 있었다.

어느 탁아소에선 낮잠시간에 6세 된 남녀 아이가 옷을 위로 걷어올리고 엎치락 뒤치락을 하며 성관계하는 장면을 흉내내고 있었다.
부모나 교사가 행위 그 자체를 보고는 놀랄 일이겠지만 아이들은 단순한 놀이와 장난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이 많은 유아기 아이들은 놀이와 장난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 보려고 하고 직접 흉내를 내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 부모나 교사는 먼저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소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 크게 놀라거나 갑자기 야단을 칠 경우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고 더욱 은밀하게 할 수 가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속에서 그런 놀이를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안 좋은 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옷을 벗고 하는 엄마 아빠놀이는 엄마 아빠처럼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한 후에 하는 것이고 남자의 음경은 아기씨를 만드는 곳이라 함부로 만져서는 안되며 여자의 질이나 생식기도 아기를 낳는 곳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성행동에 대한 교육은 미리미리 관점을 세워 준비되었다가 문제 발생시 바로 일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자위행위

4세된 아들이 엎드리기만 하면 생식기에 힘을 주며 비빈다거나 6세된 딸이 시간만 나면 생식기를 만지는데 잠시 만지는게 아니라 땀을 한참 흘리며 그러고 있다는 경우, 심한 경우 뾰쪽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상처를 입은 경우 등 유아기 자위행위는 옛날에 비해 요즘 많이 나타나는데 생활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다.
예날 아이들은 밖에 관심거리가 많았다. 즉 이웃의 친구들, 풍부한 자연환경과 접해 있었다. 남성의 음경 과 여성의 음핵은 혈관과 신경세포가 많이 몰려있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우연히 만지거나 어떤 자극에 의해 닿았을때 아이는 이상해 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예전에는 생식기 감각을 느꼈어도 집착할 사이 없이 외부세계로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아이들은 가족 수도 줄었고 아파트와 같은 폐쇄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의 관심거리가 줄어든 환경에서 보다 자신의 내부로 몸의 감각에 집착할 여지가 높아진 것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먼저 흉칙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심한 경우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스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아이의 관심거리를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 보름이나 한달 일정기간 동안 다양하게 함께 놀아 주는 것이다. 공놀이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외부세께로 관심을 돌리게 해 몸으로 향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흉이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Ⅳ. 성폭행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행의 대상이 어린이에게도 유아기 어린이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길가에서, 놀이터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아버지로 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행의 내용도 뽀뽀에서 만지는 것, 옷벗기고 마찰하는 것을 비롯해 어른 생식기를 만지고 빨아달라고 하는 것, 치명적인 강간까지 실로 다양하다.
널려 있는 성폭행의 위험속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이러저러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당한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심각성과 후유증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아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울고 불고 흥분을 하면서 아이가 듣는데 얘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암담해 하는 표정을 짓는 등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큰일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침착하게 아이의 입장을 놓고 해결할 일인 것이다.

문제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담담하게 아이를 대한다.
요란하지 않게 또한 걱정스런 눈길로 측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한다.그 자체가 아이에게 더욱 괴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단순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

2사건에 대해 아이에게 올바르게 정리시켜 주어야 한다.
푸근한 분위기에서 사실을 다 말하도록 하고 정리시켜야 하는데 정리해줘야 하는 주 내용은 두가지이다. 첫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기분은 나쁜 일이지만 네가 잘못한 일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야 하며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활짝 웃으며 안아 주거나 보듬어 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잘못은 아저씨에게 있는데 잘못의 내용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억지로 행동한 것과 또 여자의 몸은 귀중한 것인데 장난감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것으로 아저씨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알려준다.

3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활동영역을 좁혀 위축시키기 보다는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4심각한 사건이거나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법적인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전문단체나 의사, 변호사와 상담하게 한다.
상처가 있고 아이가 힘들어 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는게 좋다. 아이의 치료도 중요하고 나중에 법적인 처리를 요할 경우 중요한 판단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교육 권장 도서>
* 아빠가 되고 싶어요 (사계절) - 3세~6세
* 엄마가 알을 낳았대 (보림) - 3세~6세
* 내동생이 태어났어요 (비룡소) - 3세~6세
* 나는 여자 내동생은 남자 (비룡소) - 3세~6세
* 벌거숭이, 벌거숭이 (한림) - 3세~6세
*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다섯수레) - 7세~12세
* 쉿,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1,2권 (웅진) - 초등학교 고학년
*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계절) - 초등학교 고학년
* 엄마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여자의 성(글수레) - 초등학교 고학년
* 아빠가 이야기 해주고 싶은 남자의 성(글수레) - 초등학교 고학년